

한국어 경동사 구문의 강제와 사용 빈도: 말뭉치 연구

윤소연

인천대학교

Coercion of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 A Corpus Based Study

Yoon, Soye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7.3.202111.317>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October 11, 2021

Revised: November 05, 2021

Accepted: November 15, 202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1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7.3, 317-334. This study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degrees of coercion (i.e., resolution of semantic compatibility between a construction and a lexical item that occurs in the construction) and frequency of usage shown in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 (LVC) [NP(-*ul*) *ha-*] ('do NP'). The usage-based model of grammar (Kemmer & Barlow, 2000; Langacker, 1988) assumes that linguistic knowledge is grounded in language use.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study observed contemporary spoken data of Sejong Corpus and obtained collocation strength of the NPs occurring in the LVC. The study showed a correlation of the collocation strength, acceptability judgments on the coerced LVC expressions used in Yoon (2019)'s study, and semantic compatibility obtained through theoretical observation. Moreover, the current study discusses how the lexical item, construction, and context interact for the coercion. With the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that investigates the relation of frequency in use and linguistic knowledge. It also demonstrates actual usage of Korean LVC which has been mostly discussed from theoretical standpoint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light verb construction, coercion, frequency, usage-based model, corpus

1. 서론

한국어에서 [[명사](-을) 하-] 구문은 경동사 구문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Chae, 1997; Choi, 2014; Choi, 2016; Joh, 2018; Kim, 2004). (1)의 잔한 글씨로 표현된 '공부를 하다'에서 동사 '하-'는 의미적으로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고 다만 시제나 논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동사이다. 대신 이 구문의 의미를 반영하는

요소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로, 통상적으로 서술명사(verbal noun)로 간주된다. 통사적으로는 동사와 명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의미적으로는 (1)의 ‘공부’처럼 사건(임서현, 2004)이나 과정, 동작(서정수, 1991; Chae, 1997)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1) 철수가 공부를 한다.

이 경동사 구문은 목적어 자리에 사건유형의 명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사건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서술적 의미가 아닌 다른 종류의 명사가 오는 경우, 특정한 문맥이 없다면 해당 경동사 구문은 매우 어색한 표현이 된다. (2)에서 ‘돌’은 전형적인 자연물로, 서술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명사이다.

(2) *철수가 돌을 한다.

그런데, 사건 유형의 명사가 아니더라도 경동사 구문에 쓸 수 있는 명사도 있다. (3)의 ‘피아노’가 그러한 경우이다. ‘피아노’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구문 전체는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3) 철수가 피아노를 한다.

이처럼 사건 유형의 명사가 아니더라도 해석이 가능하여 비문이 되지 않는 것은, 강제(coercion)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에서 강제는 특정 구문의 의미와 그 안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가 호환적(compatible)이지 않을 경우, 구문의 의미에 맞추어 어휘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 비호환성을 해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ichaelis, 2005). 그런데 (1)-(3)에서와 같이, 구문과 어휘의 의미가 얼마나 호환적인가는 정도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비호환성이 해소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강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언어사용 기반 모델(usage-based model, Langacker, 1988; Kemmer and Barlow, 2000)에 따르면 언어지식은 언어사용을 통해 구축된다. 언어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언어 표현들은 언어적 지식, 즉 문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슷한 패턴을 가진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면, 사용자들은 용례들의 공통점을 일반화하고 범주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용례들로부터 일반화된 문법이 그들의 언어지식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entrenched). 또 이렇게 자리잡은 언어지식에 부합하는 용례는 자주 사용된다. 즉, 사용 빈도와 언어지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어의 경동사 구문의 용례에 나타난 명사의 호환성 정도 및 강제의 정도는 실제 사용된 빈도에 반영되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어 경동사 구문에 대해 “한국어의 경동사구문은 ‘어떠한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건 유형의 명사를 요구한다”라는 언어적 지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강제가 일어난 경우는 이러한 지식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이며, 빈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경동사 구문인 [[명사](-을) 하-]가 어떠한 의미군의 명사와 함께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말뭉치를 사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실증적 자료를 통해 의미적 호환성의 정도와 빈도의 정도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문법적 지식과 언어사용 빈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에 이론적 틀에서 논의되었던 [[명사](-을) 하-]구문의 실질적 사용을 알아봄으로써 경동사 구문에 대한 논의를 어휘와 구문의 의미, 그리고 문맥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범위로 확장하고자 한다. 그동안 [[명사](-을) 하-] 구문은 경동사로서의 위치에 대한 통사적 논의에 국한되었거나, 혹은 생성어휘부 이론 내에서 의미 호환성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어떠한 명사구가 경동사에 쓰였을 때 강제가 가능한지를 논의한 데에 국한되어 있었다. 본 논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 구문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빈도로 강제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 선행 연구

2.1 한국어 경동사구문

(1)에서처럼 쓰이는 한국어의 [[명사](-을) 하-] 구문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이 구문의 구성요소인 명사나 동사 ‘하-’의 기능과 성격이 무엇이며, ‘공부하다’와 같은 중동사(*heavy verb*)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치중되어 있었다.

명사가 독립적 단어로 쓰이면서 조사를 취할 수 있는 ‘공부를 하다’와 하나의 동사처럼 쓰인 ‘공부하다’의 이 두 구문은 의미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통사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힘든 공부를 하다’는 문법적이지만 ‘힘든 공부하다’는 어색한 표현인 것처럼, 형용사, 부사, 관형어 등 수식이 허용되는 양상이 다르거나 수동태로 바꾸었을 때 주어의 성격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임흥빈(1979)은 ‘공부하다’와 같은 동사가 어근 분리 현상을 거쳐 ‘공부를 하다’가 성립한다고 하여 이 두 구문을 분리하였다. Joh(2018)는 이 두 구문을 모두 경동사 구문으로 보되 Kearns(1988)의 구분 방법을 따라 ‘공부를 하다’는 모호 동작 동사 구문(*Vague Action Verb Construction*)으로, ‘공부하다’는 진-경동사 구문(*True Light Verb Construction*)이라고 구분하였다. Choi(2014)는 인지문법의 틀에서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 둘은 같은 의미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에 윤곽을 부여해서(*profile*) 개념화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들 구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공부하다’처럼 중동사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부’가 독립적 단어로 쓰인 경우만을 경동사 구문으로 다루도록 한다.

‘공부’, 즉 ‘-하다’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명사](-을) 하-] 구문을 경동사 구문으로 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를 서술명사(*verbal noun*)로 보았다(Chae, 1997; Choi, 2014; Choi, 2016; Joh, 2018; Kim, 2004). 통사적으로는 여러 특징이 있겠으나 이 중 가장 대표적 특징은 (4)와 같이 논항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어학을’이란 목적어는 ‘공부’가 부여하는 논항이다.

(4) 철수가 언어학을 공부(를) 한다(Chae, 1997: 582).

이 명사에 대하여 학자들은 나름의 통사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명사의 특별한 하위 범주에 넣자고 주장하기도 하고(Chae, 1997; Kim, 2004), 동사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Choi, 2016),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 범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Pak, 1999).

한편, 동사 ‘하-’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¹⁾. 송정근(2007)에 따르면, ‘하-’에 대한 입장은 의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거나 구체적 의미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전자는 <표준국어대사전>처럼 다의어로 처리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하-’의 의미는 (5ㄱ)으로, 이때 경동사 구문의 목적어는 ‘행동’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명사 전반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언급된 의미들은 (5ㄴ-ㄷ)처럼 명사의 의미 범주가 한정적이어서, 해당 의미 범주에 속하는 명사가 나와야 ‘하-’의 의미도 해당 의미로 해석된다.

(5)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의 의미(일부 발췌)

- ㄱ.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예) 싸움을 하다
- ㄴ. 음식물 따위를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 따위를 피우다. 예) 커피 한 잔 하시죠.
- ㄷ.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경영하다. 예) 피아노를 하다.
- ㄹ. 어떤 지위나 역할을 맡거나 책임지다. 예) 주인공을 하다.
- ㅁ. 값이 어느 정도에 이르다. 예) 값은 얼마를 합니까?

그러나 송정근(2007)의 지적처럼, ‘하-’의 모든 의미를 이렇게 열거하여 다의어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담화의 문맥에도 영향을 받는 점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반지를 하다’는 경우에 따라 ‘반지를 끼다’가 될 수도, ‘반지를 사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하-’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 중 하나는, 이를 어떠한 상황에도 문맥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대동사(pro-verb)로 보는 것이다(서정수, 1991). ‘하-’는 원래 허형태소로 비실체성의 명사들(예: 운동)과 어울리는데, (5ㄴ-ㄷ)처럼 실체성 명사들이 오는 경우 이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대동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는 일반적인 대동사와 분명 다른 부분이 있다. (5ㄴ-ㄷ)는 일반적으로 선행 문맥이 없어도 ‘하-’의 의미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반면, (6)의 경우에는 선행 문맥이 없는 경우 그 의미를 추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6) ㄱ. (나는 뭘 청소하지?) 너는 책상을 해. (송정근, 2007: 129)

- ㄴ. (너는 그 연극에서 무슨 역할이야?) 난 새를 할 거야.

즉, 경동사 구문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 ‘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성의 정도, 해석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연구들이 경동사 구문의 명사의 통사적 성격이나 ‘하-’ 동사의 자체의 의미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경동사 구문과 그 안에 나오는 명사의 다양한 정도의 의미적 호환성에 초점을 맞추어, 명사의 의미

1) 서정수(1991)에 ‘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총 7가지로 정리되어 있으나 이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경동사구문 이외의 ‘하-’도 아우르는 논의이다. 예를 들면 ‘저 장미는 예쁘기도 하구나,’ ‘그 아이가 행복하다,’ ‘별이 반짝반짝한다’ 와 같이 [명사(를) 하다]와 별도의 구문에 쓰이는 ‘하-’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는 경동사 구문에만 한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

적 자질과 비호환성이 해소된 강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의 (1)-(3)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동사 구문의 목적어 자리에는 아무 명사나 올 수가 없다. 의미적으로는 (5ㄱ)과 같이 ‘공부’ ‘청소’ ‘운동’ 등의 명사처럼 사건이나 동작이 나올 때가 가장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도 사건유형의 명사가 아닌 경우, 즉 (5ㄴ-ㄷ)처럼 다소 한정적인 명사들이 나와서 특정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서정수, 1991; 송정근, 2007; Chae, 1997). 이 예들은 선행 문맥에 의존해야 하는 (6)과는 다르다. (5)와 (6)의 예들을 1장에서 언급한 강제와 연관짓자면, (5ㄱ)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강제가 필요 없는 경우, (5ㄴ-ㄷ)은 강제가 일어난 경우, (6)은 강제가 일어나기 힘들어 상당 부분 문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왜 특정 의미의 명사가 나왔을 때 단순히 선행 문맥에만 좌우되지 않고 특정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대해 일부 학자들(임서현, 2004; Im and Lee, 2013; Jun, 2004)은 생성어휘부 이론에 입각하여 이를 유형강제(type coercion)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강제가 일어나는 기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강제가 정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언어 사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2.2 강제와 한국어 경동사 구문

강제는 원래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Pustejovsky, 1995) 이론에서 유형강제(type coercion)로 논의되었다. 술어와 논항 사이의 유형충돌(type error)을 막기 위해 술어가 자신의 논항의 의미유형을 술어가 요구하는 유형으로 전환하는 작용(임서현, 2004)이 유형강제이다.

(7) ㄱ. John began to read a book.

ㄴ. John began the book.

예를 들면, (7ㄱ)에서 *begin*은 사건 유형을 논항으로 요구한다. *to read a book*은 이를 충족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7ㄴ)에서 *begin*의 논항은 *the book*으로, 개체유형의 명사구이다. 여기에서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과 해당 논항의 유형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사의 개체적 특성을 술어가 요구하는 유형, 즉 사건유형으로 변환하여, (7ㄴ)은 단순히 ‘책을 시작했다’가 아니라 ‘책을 읽기 시작했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설명은 기호기반의 구문문법(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Michaelis (2005: 49)는 ‘강제란 구문의 의미와 그 안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가 비호환적인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휘의 의미가 구문의 의미에 맞추어 해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영어에서는 가산명사를 요구하는 [a N]의 구문에 불가산명사가 나오는 경우(*a coke*), 비상태동사(non-stative verb)를 요구하는 현재진행형 구문에 상태동사가 나오는 경우(*I'm liking your description*), 이중목적어 구문에 타동사가 나오는 경우(*Joe kicked Bill the ball*) 등을 강제의 예로 설명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경동사 구문의 해석을 생성어휘부 이론의 틀 안에서 강제로 설명한 연구들이 있다(임서현, 2004; Im and Lee, 2013; Jun, 2004). [[명사](-를) 하-] 구문에서 술어인 ‘하-’가 요구하는 명사는 사건유형의 명사이다(Im and Lee, 2013). 따라서 (1)처럼 ‘공부’나 ‘청소’, ‘시위’, ‘다림질’ 등의 행위나 사건을 나타내는 명사는 경동사 구문과 매우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반면, (3)의 ‘피아노를 한다’라는 표현처럼 개체유형의 명사가 오면 사건유형의 명사가 쓰인 경우에 비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선행 문맥 없이도 ‘첼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의미로 강제되어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말하는 해당 명사의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때문이다. 특질구조는, 이 명사에 해당하는 물건/사건이 어떠한 형태로(형상역: *formal role*), 무슨 요소로 구성되어(구성역: *constitutive role*),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기능역: *telic role*),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작인역: *agentive role*)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Im과 Lee(2013)에 따르면 경동사 구문에서 강제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적어도 두 가지이다²⁾. 첫째, 명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능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능물과 관련있는 특질구조의 기능역과 작인역이 중요한 요소인 명사들이다. ‘피아노,’ ‘택시’ 등은 연주하거나 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능물로, 이 명사들이 경동사 구문에 나오면 ‘피아노를 연주하다,’ ‘택시를 운전하다’라는 의미로 강제된다. 반면 ‘새,’ ‘돌’ 등은 자연물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체가 아니다. 따라서 형상역, 구성역이 중요하며 기능역과 작인역은 사실상 비어있다. 이러한 자연물은 ‘새를 하다,’ ‘돌을 하다’에서처럼 강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은, 기능물 중에서도 해당 명사가 기능역을 기술하는 술어의 직접목적어여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직접기능역(*direct telic*)이라 칭하였다. 예를 들면, ‘피아노’는 기능역인 ‘연주하다’의 직접목적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책상’은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물이지만 책상은 ‘공부하다’라는 기능역의 직접목적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책상에서 공부하다’라는 장소의 역할을 하여, 공부하다라는 사건에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참여기능역으로 나타날 뿐이다. ‘칼’ 역시도 자르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칼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간접기능역). 물론, ‘칼을 한다,’ ‘책상을 한다’ 등의 표현은 ‘칼을 마련하다, 책상을 사다’ 등의 의미로 강제할 수 있으나, 사실 이 의미는 칼이나 책상과 연관된 특정 의미라기보다는 기능물이라면 대부분 가능한 의미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하다’와 같은 강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의미적 조건을 보면 ‘공부를 하다,’ ‘피아노를 하다,’ ‘책상을 하다,’ ‘돌을 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는 ‘일어난다 / 일어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구문과 어휘의 의미적 호환성의 정도에 따라 강제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이다. Yoon(2012; 2013)은 이러한 정도성을 포착하여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을 통해 언어사용 기반 모델의 가정을 바탕으로 호환성에 대한 언어지식과 언어사용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호환성이 높아서 강제가 필요 없거나 강제의 정도가 약할수록 자연스러운 문장이라 판단되고 사용 빈도가 높고 처리도 쉽게 된다는, 문법성 판단 - 빈도 - 처리 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빈도가 언어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는 보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Yoon(2019)은 한국어의 경동사 구문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빈도가 언어 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보이고자 하였다. ‘자주 사용되는 비슷한 표현들의 패턴으로부터 언어지식이 형성된다’는 언어사용기반 모델의 가정을 기반으로 한 실험 연구였다. 의미 호환성이 높아서 강제가 필요 없는 표현은 물론(‘청소를 하다’), 약한 강제(‘피아노를 하다’), 강한 강제(‘책상을 하다’),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돌을 하다’) 등의 네 단계의 호환성을 가진 문장들을 만들어 실험을 하였다. 163명의 참가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은 네 단계의 호환성 중 하나에 속하는 문장 5개가 2번씩 들어 있는 문단을 약 2주 동안 총 5회에 걸쳐 읽었다. 즉, 해당 호환성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총 50번 접한 셈이

2) 본 논문은 경동사 구문에서 강제가 일어나는 의미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생성어휘부 이론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는다. 이 이론의 틀에서 설명한 강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서현(2004)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5회 읽기 전과 후에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판단하게 하였는데,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결과 모든 그룹의 참가자들이 다소 비호환적인 표현에 대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강한 강제 문장을 접하였던 그룹에서 그 변화가 가장 컸다. 중요한 것은, 5회의 세션 동안 접했던 문장이 아닌 새로운 강제 문장에 대해서도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자주 접했던 문장 그 자체의 효과만이 아니라, 해당 문장을 자주 접함으로써 호환성에 대한 지식 자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새로운 문장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언어적 지식, 즉 호환성에 대한 지식에서 조금 벗어난 강제된 문장들이 언어지식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Yoon(2019)의 연구는 언어 지식의 변화의 요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제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예문을 자료로 한 실험 연구였다. 무엇보다 언어 변화에 대한 예측 이전의 문제, 즉 현재 경동사의 호환성 및 강제에 대한 지식이 실제 언어 사용의 빈도에 대해 반영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선행 연구(Yoon, 2012; 2013)에서 영어 구문을 통해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한 언어에만 국한된 상관관계였으므로, 한국어를 통해 이 상관관계를 밝힌다면 언어지식과 사용 빈도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강제된 표현들의 해석이 기존 연구(임서현, 2004; Im and Lee, 2013)에서 주장한 대로 특질구조에 따라 해석되는지, 아니면 문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연구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한국어의 경동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명사]의 성격, ‘하-’ 동사의 의미나 강제의 조건 등 이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구체적 자료를 통해 다양한 강제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은 경동사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설계

경동사구문이 사용된 실제 사용된 빈도 및 구체적 용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종 말뭉치 중 형태 분석이 된 현대 구어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어 경동사 구문을 추출하였다. 이 자료에 나타난 빈도와 언어지식의 관계를 보고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적법성 판단에 대한 과거 실험연구(Yoon, 2019) 결과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특정 명사가 사용되었을 때의 빈도와 그 표현에 대한 문법성 판단의 점수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다음으로는, 말뭉치 일부에 나타난 경동사 구문을 전부 추출하여 각 명사가 경동사 구문과 사용되는 빈도와 2.2에서 언급했던 강제의 의미 조건에 따라 구분된 호환성의 정도와 비교하였다. 빈도에 대한 정량화를 위해 연구문강도(collostruction analysis, Stefanowitsch and Gries, 2003)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실제 어떤 의미로 강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로써 이론적으로 정립된 호환성과 실제 사용 빈도의 연관성 및 어휘, 구문, 문맥의 의미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8)과 같다.

(8) 연구문제

- ㄱ. 경동사구문과의 강제의 정도가 다른 명사가 경동사구문 안에 쓰였을 때, 그 표현에 대한 문법성의 판단과 실제 그 표현이 쓰이는 빈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 ㄴ. 경동사구문 안에는 어떤 명사들이 쓰이며, 이 명사들의 의미호환성 및 강제의 정도는 빈도와 연관이 있는가?
- ㄷ. 강제 표현의 해석에 있어, 명사, 구문, 문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3.1 용례의 추출

본 연구에 사용된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 말뭉치> 중, 현대 구어에 형태 분석이 부착된 말뭉치로, 약 800,000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강제된 표현의 경우 일반적인 호환성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나는 표현이라 여겨져 다소 형식을 갖추어 쓰게 되는 문어 자료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어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마루 2.0>이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경동사 구문의 용례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뒤에 동사 ‘하-’가 어근으로 나온 경우를 검색하되, 명사는 ‘하-’ 동사와는 별개의 독립적 단어로 쓰여야 한다. 즉, ‘공부하다’와 같은 중동사는 제외하였다. 명사는 조사와 함께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명사와 동사 ‘하-’ 사이에는 0 또는 1 개의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를 추출하였다.

(9) ㄱ.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ㄴ. 그런 거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9ㄱ)처럼 명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나오고 이어서 바로 ‘하-’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경동사 구문이다. 하지만 (9ㄴ)처럼 조사가 나오지 않거나 명사와 ‘하-’ 사이에 한 개의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모두 용례에 포함하였다. 과거 경동사 구문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경우도 경동사 구문에 포함하거나(Chae, 1997; Choi, 2014; Choi, 2016; Joh, 2018)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배제하지는 않았기(임서현, 2004; Im and Lee, 2013) 때문이다. 다만 명사와 ‘하-’ 사이에 다른 단어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하나의 경동사 구문으로 묶기 힘들 수도 있어서 사이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로만 제한하였다. 실제 등장한 단어는 대부분 ‘안’ 혹은 ‘못’ 등이었고, 그 밖에 ‘많이,’ ‘좀,’ ‘잘’ 등의 부사였다. 3.3.2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연구문제 (8ㄴ-ㄷ)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 현대구어 말뭉치의 가장 최근 자료 일부를 선택하였는데(136,000어절), 이 자료를 통해 추출된 경동사 구문의 대부분이 목적격 조사가 있는 경우였고, 조사가 없는 경우나 명사와 동사 사이에 한 단어가 나온 경우는 소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세종 말뭉치 일부(136,000어절)에서 검색된 경동사 구문의 용례의 비중

경동사 구문의 유형	용례 개수	비율(%)
추출된 경동사 구문 총 개수	1318	100
- ‘-을/를’의 목적격 조사가 있는 경우	- 1048	- 79.5
- 조사가 없는 경우	- 270	- 20.5
한 단어가 명사와 동사 사이에 나온 경우(조사 종류 및 유무와 무관)	202	15.3

3.2 연구문 분석

경동사 구문과 그 안의 명사가 함께 사용되는 빈도를 구하기 위하여 연구문 분석(collostructional analysis, Stefanowitsch and Gries, 2003)을 이용하였다. 연어(collocation)가 단어와 단어가 일반적인 조합에 비해 자주 사용되는 관계를 나타낸다면, 연구문(collostruction)은 특정 구문과 그 안에 사용되는 단어의 관계를 나타낸다. 연구문 분석은 주어진 어휘가 다

른 어휘에 비해 해당 구문에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는지(attracted), 즉 얼마나 자주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말뭉치에 나타난 빈도를 바탕으로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의 통계 방식을 사용하여 수치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연구문 강도(collostruction strength)라고 한다. 피셔의 정확검정을 사용하면, 특정 어휘와 그 어휘가 아닌 경우, 특정 구문과 그 구문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어휘와 구문의 연관성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다. 강도의 숫자가 클수록 해당 구문과 어휘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바꿔 말하면 이들이 함께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자료에서 명사 ‘운동’은 총 68회가 쓰였으며, 이 가운데 ‘운동을 하다’는 17회로 25%를 차지했다. 반면, ‘약제사’라는 명사는 총 2회가 쓰였고 그 중 ‘약제사를 하다’는 1회가 쓰여 50%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만 보면 ‘운동’보다 ‘약제사’가 경동사 구문과 더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인 한국어 화자라면 ‘운동’이 경동사 구문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반면, 연구문 분석을 통해 계산된 연구문 강도는 ‘운동을 하다’가 6.68, ‘약제사’가 0.95로, 전자가 경동사 구문과 더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운동’이 아닌 명사, 경동사 구문이 아닌 구문과의 상대적 연관성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흔히 쓰이는 비율보다는 연구문 강도를 빈도의 척도로 사용한다.

3.3 분석 과정

3.3.1 문법성 판단과 빈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과정

연구문제 (7)은 실제 화자들이 다양한 강제의 정도를 가진 문장을 얼마나 문법적, 혹은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지에 대한 점수에 그들의 의미호환성에 대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언어 지식과 빈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설정한 질문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Yoon(2019)의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문법성에 대한 판단 결과와 세종 현대국어 말뭉치를 통해 분석한 연구문 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Yoon(2019)은 2.2에서 기술한 대로 Im과 Lee(2013)가 제시한 강제의 조건을 바탕으로 경동사 구문 [[명사](-를) 하-]와 그 안의 명사 사이의 의미 호환성을 4단계로 설정한 뒤,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명사를 5개씩 선정하여 문장의 주어와 경동사 구문의 명사를 바꾸어 가며 문장을 만들었다(예: “민호는 공부를 했다” “정민이는 시위를 했다” 등). 각 단계의 의미 호환성, 이에 따른 강제의 정도, 의미적 조건, 당시 실험에 사용된 문장의 명사들은 <표 2>와 같다.

표 2. Yoon(2019)의 실험에 사용된 문장들

의미호환성	강제의 정도	의미적 조건	명사
1 매우 높음	강제 불필요	사건 유형	청소, 공부, 산책, 시위, 다림질 예) 민호는 공부를 했다.
2 약간 높음	약한 강제	기능물 직접기능역	술, 피아노, 커피, 담배, 트럭 예) 세원이는 커피를 했다.
3 약간 낮음	강한 강제	기능물 간접/참여 기능역	세탁기, 의자, 소파, TV, 문 ³⁾ 예) 정민이는 문을 했다.
4 매우 낮음	강제 불가	자연물	강, 돌, 구름, 흙, 풀 예) 기원이는 구름을 했다.

이들 명사가 경동사 구문과 쓰인 경우를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각 명사의 연구문 강도를 구하였다. 기존 연구(Yoon, 2019)를 통해 문법성 판단 결과가 이미 점수화되어 있으므로, 이 점수와 연구문 강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3.3.2 의미호환성과 빈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과정

연구문제 (L)은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정한 언어적 지식이 실제 언어 사용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으며, 그 빈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이에 답하려면, 연구문제 (ㄱ)에서처럼 한정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선택된 명사뿐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다양한 명사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빈도 및 강제된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기에는 시간적, 환경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 현대국어 말뭉치 중 가장 최근의 자료 136,000어절로 이루어진 부분을 선택하였다.

3.1에서 기술한 것처럼 [명사(-조사) (단어) 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용례를 모두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1318개의 경동사 구문의 용례가 추출되었고, 명사의 종류는 총 445개였다. 경동사 구문과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된 명사는 ‘애기’로 총 130회가 경동사 구문에 사용되었다. 각 명사에 대해 해당 명사와 경동사구문 사이의 연구문 강도를 구한 뒤, 연구문 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1위는 가장 연관성 높음, 즉 가장 잦은 빈도로 경동사 구문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의미호환성이 총 4단계이므로, 순위별로 네 그룹으로 묶었다. 1그룹은 높은 순위의 명사들, 4그룹은 순위가 낮은 명사들이다. 만약 의미호환성과 연구문 강도가 연관이 있다면, 1그룹에 있는 명사들은 의미호환성이 가장 높은 명사들이 많아야 하고, 반면 4그룹의 명사들은 의미호환성이 낮은 명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의 의미호환성의 평균을 비교해보고, 각 그룹별로 강제가 필요한 명사들(즉, 사건유형이 아닌 명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3.3.3 강제의 해석에 대한 분석

강제의 해석은 의미호환성 2-4에 해당하는 명사를 중심으로, 각 용례의 문맥을 고려하여 그 강제 표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따졌다. 각 명사의 내제적인 의미, 즉, 명사와 긴밀하게 연관된 기능역, 작인역 등이 무엇이며, 이들이 실제 강제의 해석에 반영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맥이 역할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정량적 분석보다는 몇몇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정성적인 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문법성 판단과 빈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표 3>은 Yoon(2019)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문법성 판단에 대한 점수와, 이론적 관찰에 의해 분류된 의미호환성 점수 및 본 연구를 위해 말뭉치에서 추출한 해당 명사와 경동사 구문 사이의 연구문 강도이다⁴⁾. 각 의미호환성 구간의 명사들

3) 이 명사들의 기능역(해당 기능물이 생겨난 목적)은 각각 ‘빨다, 앉다, 앓다, 프로그램을 보다, 들어가다’이다. 이러한 술어에 대해 이 명사들은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직접기능역이 아니다. 오히려 그 행위를 위한 도구나 장소의 역할을 하므로 간접/참여기능역이라 할 수 있다.

은 문법성 판단의 점수(1: 매우 자연스러움, 5: 매우 부자연스러움)의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문법성 점수와 연구문 강도의 평균이 각 구간의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다.

표 3. 실험 연구에 쓰인 명사의 의미 호환성, 문법성 판단 점수, 연구문 강도

	의미호환성	문법성 점수		연구문 강도	
청소	1	1.02	(1.07)	13.70	(52.30)
산책		1.05		2.37	
공부		1.06		239.38	
시위		1.10		3.31	
다림질		1.12		2.76	
담배	2	2.90	(3.62)	0.42	(0.54)
술		2.93		2.11	
피아노		3.66		0	
커피		4.20		0.20	
트럭		4.41		0	
세탁기	3	4.23	(4.48)	0	(0.36)
문		4.51		1.61	
의자		4.52		0.20	
TV		4.53		0	
소파		4.62		0	
풀	4	4.26	(4.55)	0	(0.19)
돌		4.57		0.74	
강		4.62		0.20	
흙		4.64		0	
구름		4.65		0	

<표 2>에 제시된 의미적 조건에 따라 의미 호환성(1: 매우 호환적, 4: 매우 비호환적)을 기준으로 명사군을 분류하였을 때 문법성 점수를 보면, 참가자들은 가장 호환성이 높은 명사군, 즉 사건유형의 명사가 왔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평균 1.07), 기능물이면서 직접기능역일 때는 보통이었으며(평균 3.62)였다. 생성어휘부 이론에 따라 강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호환성 3, 4의 명사들은, 실제로도 점수에 큰 차이가 없이 경동사 구문에 나왔을 때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점수가 나왔다(평균 4.48, 4.55). 한 편, 빈도의 경우 의미호환성과 문법성 점수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호환성이 높을 수록 비교적 자주 나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호환성 1의 명사들의 연구문 강도는, 유난히 높은 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 네 개의 평균도 5.35로, 타 명사군에 비해 연구문 강도가 높다.

이러한 문법성 점수와 연구문 강도는 상관관계는 한계적으로 유의했다(Pearson Correlation, $r = -.410, p = .072$). 문법성 점수의 경우 자연스러울수록 작은 숫자로, 연구문 강도는 빈도가 잦을수록 큰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적 상관관계

4) ‘공부’의 경우, 연구문 강도 측정에 사용된 용례는 ‘공부를 하.’로 한정하였다. 조사가 없거나 다른 종류의 조사가 사용되거나 한 단어가 삽입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면 공부의 개수가 다른 명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검색되어 다른 명사와 비교가 힘들 만큼 연구문 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negative correlation)로 나타났다. 명사들 중 ‘공부’와 ‘청소’의 경우, 연구문 강도가 타 명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 값을 이상값(outlier)으로 보고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 = -.861, p < .001$). 즉, 사람들이 해당 구문과 명사가 같이 쓰였을 때 자연스럽게 느낄 수록 더 자주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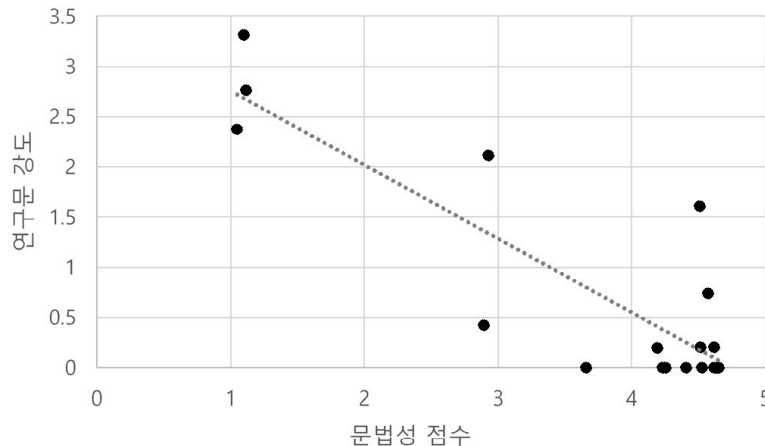


그림 1. 문법성 점수와 연구문 강도의 상관 관계(이상값인 ‘공부’와 ‘청소’ 제외)

다만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법성 점수가 1-5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1에 가깝거나(그림에서 제외된 청소와 공부도 1에 매우 가까운 점수였음), 4-5 사이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강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즉 약한 강제나 강한 강제의 경우에 대한 문법성 판단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이다. 연구문 강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강도가 1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의미호환성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명사 중 실제로 기존에 확립된 문법적 지식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강제가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며, 실제로 중간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 명사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법성과 빈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명사들, 특히 약한 강제에 해당하는 명사들의 경우, 경동사 구문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의미호환성과 빈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세종 현대구어 말뭉치의 일부에서 검색된 경동사 구문의 용례는 총 1318개이며, 명사의 종류는 총 445개였다. 경동사 구문에 나오는 명사 445개 중 대부분이 사건유형의 명사로, 80%인 356개였다. 20%가 강제된 표현이었는데, 이 가운데 호환성 2, 3, 4의 명사는 각각 45, 35, 9개로 비호환적인 명사일 수록 강제되어 경동사에 나타난 용례도 적어졌다.

각 명사들을 연구문 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뒤 이를 네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각 그룹에 111-112개의 명사가 들어가야 하지만, 개수만을 고려하면 연구문 강도가 동일하여 동순위의 명사들임에도 임의로 그룹을 나눠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동순위의 명사는 한 그룹으로 묶었다. 이에 1그룹(가장 연구문 강도가 높은 명사들)에는 1-111위까지(총 111개), 2그룹은 112-206위까지(95개), 3그룹은 207-330까지(124개), 4그룹은 331-445위까지(115개)의 명사가 들어가게 되었다.

각 그룹 별로 순위가 가장 높은 명사와 가장 낮은 명사 10개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문 강도 순위별 그룹의 상/하위 10개의 명사(호환성 2~4여서 강제가 일어나는 명사는 음영처리)

그룹1 (1-111위)			그룹 2 (112-206위)			그룹 3 (207-330위)			그룹 4 (331-445)		
명사	의미 호환성	연구문 강도	명사	의미 호환성	연구문 강도	명사	의미 호환성	연구문 강도	명사	의미 호환성	연구문 강도
말	1	95.46	토론	1	1.37	경악	1	0.95	개정	1	0.52
얘기	1	51.26	표현	1	1.36	고소	1	0.95	구경	1	0.52
생각	1	23.40	시험	1	1.30	공헌	1	0.95	담임	3	0.52
공부	1	14.84	게임	2	1.24	교전	1	0.95	당황	1	0.52
치료	1	10.74	의사소통	1	1.24	구상	1	0.95	랭귀지 스쿨	3	0.52
활동	1	9.02	특강	1	1.24	구실	1	0.95	부여	1	0.52
패스	1	8.99	파괴	1	1.24	군필	1	0.95	사진학과	3	0.52
대답	1	8.74	피어싱	1	1.24	대체	1	0.95	순교	1	0.52
이야기	1	8.13	결성	1	1.24	도입	1	0.95	연관	1	0.52
생활	1	7.90	과소비	1	1.24	동호회	3	0.95	임신	1	0.52
...				
걱정	1	1.52	청소	1	1.04	채점	1	0.59	씨디	2	0
행동	1	1.52	클릭	1	1.04	축복	1	0.59	약물	2	0
전화	3	1.52	포기	1	1.04	출석	1	0.59	유지	1	0
기도	1	1.49	날	4	1.04	출연	1	0.59	의사	3	0
회식	1	1.38	발표	1	1.04	출판	1	0.59	제대	1	0
경청	1	1.37	칭찬	1	1.03	활용	1	0.59	지능	4	0
대기	1	1.37	발달	1	1.02	작용	1	0.56	취직	1	0
소개팅	1	1.37	연구	1	1.00	조교	3	0.56	프로그램	2	0
지지	1	1.37	이용	1	0.98	해석	1	0.56	한국어	2	0
졸업	1	1.37	한마디	2	0.96	고민	1	0.52	형성	1	0
평균	1.21	4.56	평균	1.24	1.21	평균	1.30	0.78	평균	1.57	0.30
강제 비율	11%		강제 비율	16%		강제 비율	19%		강제 비율	33%	

그룹 별 의미호환성의 평균이 1.21-1.24-1.30-1.57로 점차 비호환적이 된다는 것은, 연구문 강도가 작아질 수록 경동사구문과 호환성이 좋지 않은 명사들의 수가 점차 많아짐을 의미한다. 실제로 강제가 일어나야 하는 호환성 2, 3, 4에 해당하는 명사들(표에서 음영 처리가 된 명사)의 비율이 11-16-19-33%로 점차 늘어났다. 실제로 그룹 1의 상위 10위권 내의 명사 중에는 강제를 일으키는 명사가 하나도 없는 반면, 그룹 4의 하위 10위에 속하는 명사는 반 이상이 강제를 일으키는 명사들이었다. 즉, 경동사구문과의 연관성이 낮을수록, 혹은 해당 구문과 자주 나오지 않는 명사일수록 비호환적인 명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동사구문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의미호환성이 가장 좋은 사건유형의 명사이지만, 강제가 매우 어렵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명사들도 각각 35, 9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생활에서는 강제된 표현이 사용되고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룹 별로 명사들의 연구문 강도의 평균은 점차 작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 즉 순위가 높은 명사들의 평균이

4.56으로, 다른 그룹의 평균(1.21-0.78-0.30)에 비해 차이가 큰 편이다($F(3,441) = 16.055, p < .001, \eta^2 = .098$, Scheffé의 사후 테스트 결과, 1그룹은 2,3,4그룹과 이질적인 집합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동사 구문과 연관성이 높은 명사들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명사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연구문 강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 최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말’ ‘얘기’ ‘생각’ ‘공부’ 등의 명사들의 연구문 강도가 유난히 높는데, 이 명사들이 경동사 구문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연구문 강도가 1보다 낮은 명사들은 이미 2그룹 하위에서부터 나타나서, 그룹 3, 4의 명사들은 연구문 강도가 0~1로 거의 차이가 없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사건유형의 명사로 경동사 구문과 호환성이 높더라도 이들 경동사 구문과 자주 연관되어 허용되는 명사는 일부 특정 명사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화된 언어적 지식은 매우 관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몇몇 용례를 통해 형성된다는 본보기 기반 습득 이론(exemplar-based learning)의 주장(Tomasello, 2003; Kidd et al., 2010)과 일맥상통한다. 언어사용 기반 모델에 입각한 이 습득이론에 따르면,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의 패턴은 해당 구문에 나오는 고빈도 동사를 중심으로 습득된다. 예를 들면, Kidd et al.(2010)는 만 4세, 6세의 어린이들 60명을 대상으로 문장 보문(sentential complement) 구문을 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시험자가 문장 보문 구문에 고빈도로 등장하는 동사인 *say, know, hope, bet*을 사용하여 묘사하였다(테스트). 이후 다른 그림을 보여주며 저빈도 동사(*claim, believe, feel, wager*)를 사용하여 묘사하였다(프라임). 다시 원래 보여줬던 그림을 보여주면서 참가자인 어린이에게 그림을 묘사하라고 하였고, 이때 참가자들이 사용한 동사를 기록하였다. 테스트 동사가 저빈도이고 프라임 동사가 고빈도인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사용한 동사가 고빈도 동사인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테스트, 프라임 어느 쪽에도 사용되지 않은 동사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때 대체 동사는 모두 *think*였다. 이는 문장 보문 구문은 *say, know* 같은 몇몇의 고빈도 동사들, 특히 *think*를 중심으로 습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말뭉치의 연구문 강도가 보여주는 경동사 구문과 명사가 연관성은 본보기 기반 언어 습득의 가설을 제공하는 언어사용 기반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문 강도는 말뭉치에서의 빈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수치가 클수록 경동사 구문과 명사가 자주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경동사와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말’ ‘얘기’ ‘생각’ ‘공부’ ‘치료’ 등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경동사 구문은 [[명사](-를) 하-]라는 형식을 취하고, 그 의미는 ‘어떠한 행동을 하다’이며 이 때 나오는 명사는 사건유형의 명사이다”라는 언어지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확립된 언어지식에 부합하는 명사는 해당 구문과 쉽게, 자주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언어지식에서 벗어난 ‘의사’ ‘약물’ ‘날’ 등이 경동사 구문에 나타나면, 기존에 확립된 언어지식을 수정하는 강제가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빈도도 낮은 것이다.

4.3 강제의 해석

강제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사용된 예들은 실제 사용된 표현보다는 연구자들의 직관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들이었다. 특히 경동사 구문에 대해서는 Im과 Lee(2013)가 구체적인 강제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대화에서도 이러한 언어적 고찰에 따라 강제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명사와 구문, 문맥의 상호작용으로 강제가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호환성이 비교적 좋은 편(호환성 2)이어서 강제가 쉽게 일어나는 명사군, 즉 직접기능역이 있는 명사들의 경우,

직접기능역에 해당하는 동작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작인역의 동작으로 해석되는 경우 둘 다 많은 편이었다. 코퍼스에 나타난 용례를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10)에서 괄호 안의 내용은 말뭉치에서 앞뒤 문맥을 고려한 해석이다. (10ㄱ)은 기능물이 존재하게 된 직접적인 목적, 혹은 기능(직접기능역)으로 강제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약물’의 경우, 약물은 ‘주입하’거나 ‘복용하’기 위한 기능물이며, ‘약물을 하다’도 직접기능역에 해당하는 ‘약물을 주입하다’의 뜻으로 강제되었다. 한편 (10ㄴ)은 직접기능역이 있으나 (밥을 먹다), 기능물이 생겨나게된 원인, 즉 작인역의 뜻으로 강제된 경우이다.

- (10) ㄱ. 약물을 하다 (‘약물을 주입하다’) / 복음성가를 하다 (‘복음성가를 부르다’) / 씨디를 하다 (‘씨디를 듣다’)
 ㄴ. 밥을 하다, 백숙을 하다, 파스타를 하다 (‘-를 요리하다’)

한편, 호환성 3의 명사들이 경동사 구문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 괄호 안의 의미로 강제되었다.

- (11) ㄱ. 동호회를 하다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 랭귀지 스쿨을 하다 (‘랭귀지 스쿨 과정에서 공부하다’)
 ㄴ. 담임을 하다 / 조교를 하다 / 의사를 하다 (‘-로서 일하다’)
 ㄷ. 스피커를 하다 / 보청기를 하다 (‘-를 장만하다’)

(11)의 명사들의 경우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직접 기능역은 없고, 대신 각각 ‘-에서 활동하다, 공부하다’라는 참여기능역을 가지고 있다. 강제된 해석도 참여기능역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또한 ‘담임’, ‘조교’, ‘의사’ 등은 사실 기능물은 아니지만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신분 및 역할의 이름으로, ‘-로서 일하다, -의 역할을 하다’라는 명사 고유의 참여기능역이 있다. (11ㄷ)의 경우, 소리를 듣기 위해 ‘스피커’나 ‘보청기’가 만들어졌으나 이들 명사는 이 행위에 직접목적어 역할이 아니라(즉, 직접기능역이 아님), 이들을 이용하여 소리를 듣는다는 참여기능역이 있다. 이들이 경동사 구문에 사용되면 이 기능물이 생겨난 경위, 즉 ‘장만하다, 만들다, 사다’ 등의 작인역으로 강제 된다. 그러나 이 때의 해석은 스피커나 보청기에만 고유한 작인역이 아닌 모든 기능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작인역이므로, (10ㄴ)의 ‘요리하다’와 같은 고유의 작인역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다르다.

한편, ‘날’, ‘지능’ 같은 명사는 만들어진 기능물이 아니므로 직, 간접기능역도, 작인역도 없으며, 이들을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는 참여기능역도 없다. 따라서 호환성 4에 해당하는데, ‘지능을 하다’, ‘날을 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보면 강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들 명사가 경동사 구문에 나오면 문맥에 따라 강제가 일어난다.

- (12) ㄱ. 아이큐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몇인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능을 할려면 열 두 개의 항목을 해야 돼요.
 ㄴ. 당신은 골다공증 위험요소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 병원에 가서 골밀도를 찍어보시오 하고 이런 걸 갖다가, 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골다공증의 날 같- 날을 해요.

(12ㄱ, ㄴ)은 각각 문맥에 의해 ‘지능을 측정하다’, ‘X의 날을 기념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특징 때문에 ‘하-’ 자체를 대동사로 보자는 입장도 있다(서정수, 1991). ‘하-’와 함께 나오는 명사가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하-’는 이 명사가 서술어로서의 문법적 기능을 갖추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명사에 서술적 의미가 없으면 문맥에 따라 알맞은 의미로 해석되는 대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정근(2007)도 지적하였듯이, (10-11)에서의 표현들처럼 경동사 구문이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고 하기에는 문맥이 없어도 해당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요소로 강제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경동사 구문의 강제는 명사가 가진 의미와 ‘어떠한 행동을 하다’라는 구문의 의미, 그리고 문맥이 상호작용을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호환성 1-3에 해당하는 명사도 명사 고유의 직접기능역, 작인역 등이 아닌 선행문맥에 따라 강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홈스테이를 하다’의 경우, ‘홈스테이’는 경동사 구문과 호환성이 높은 명사(호환성 1)로, 문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홈스테이를 이용하다’ 혹은 ‘홈스테이를 운영하다’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⁵⁾. 실제로 말뭉치에 나타난 6개의 ‘홈스테이를 하다’ 중 5개는 ‘홈스테이를 운영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다. 하지만 (13-7)에서 나타나는 ‘홈스테이를 운영하다’는 담화 상의 문맥에 의해 ‘홈스테이를 소개하다’라는 의미로 강제되었다. 또한 (13-4)을 보자. ‘학교’라는 명사는 사건을 나타내거나 학교를 어떻게 한다는 직접적인 기능이 없고, 대신 ‘학교에서 공부하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등의 서술에서처럼 참여기능역만 가지고 있다. 즉 호환성 3에 해당하는 명사이다. 그런데 (13-4)의 경우, ‘학교를 하다’는 ‘학교를 추천하다, 소개하다’ 등의 의미로 강제되었다. ‘추천하다/소개하다’는 ‘학교’에 내재된 의미는 아니다. 즉, 문맥에 의해 이러한 의미로 해석 가능한 것이다.

(13) 7. 내가 처음에 왜 거기 갈 때 되게 급하게 갔잖아. 일주일 만에 준비해서 갔잖아. 근데 학교에서 홈스테이를 해주겠다.

4. 그냥 뉴질랜드가 싸다길래 그래서 유학원에 갔는데 내가 그냥 뉴질랜드에서 괜찮은 학교로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학교를 해 준 거고, ...

말뭉치의 용례를 살펴보면, 강제된 의미가 늘 정해진 패턴의 술어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직접기능역이 있어도 작인역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직접기능역이 없는 경우 참여기능역 또는 작인역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때로는 문맥에 의해 해석되어 명사의 내재적 의미는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례를 통해 살펴보면, 강제의 해석에는 단어, 구문, 이들 사이의 호환성과 문맥이 다양하게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언어 사용 기반 모델에 입각하여 한국어 경동사 구문 및 강제 현상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동사 구문과, 경동사 구문 안에 쓰인 명사의 호환성 정도가 다를 때, 이 호환성의 정도, 문법성 판단, 실제 빈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구문, 단어, 문맥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제된 표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실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말뭉치의 구체적 근거를 통해 과거 영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빈도와 언어 지식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였고, 실험, 혹은 이론적 설명을 위해 통제되고 제한된 표현을 통해 연구했던 한국어 경동사 구문의 강제에 대해 구체적 용례를 제시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홈스테이’를 ‘외국의 민박 유형의 숙소에서 머물다, 혹은 그러한 형태의 숙소를 운영하다’는 다의적 의미를 가진 사건유형의 명사로 보았다.

경동사 구문과 그 안에 다양한 명사가 쓰였을 때의 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문법성 판단을 한 실험 결과(Yoon, 2019)와 세종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바탕으로 연구문 강도를 구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동사 표현일수록 빈도가 높았던 것이다. 또한 말뭉치 일부에서 경동사 구문에 쓰인 모든 명사를 추출해 보면, 이들의 연구문 강도는 언어적 지식에 의해 판단된 의미호환성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의미적 호환성이 높을수록 빈도가 높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특정 명사(말, 얘기, 생각, 공부)의 경동사 구문의 연관성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구문에 대한 지식이 몇몇 빈도 높은 명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언어사용 기반 모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강제 해석에는 단어, 구문, 이들 사이의 호환성과 문맥이 다양하게 기여함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강제 표현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표현의 해석은 명사의 내재적 의미 중에서도 어떠한 술어와 연관되는지에 규칙이나 제약이 있는지, 문맥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단어와 구문 사이의 호환성에 대한 언어적 지식(본 논문에서는 생성어휘부 이론의 틀에서 제시한 의미적 조건)이 실제 사용자들의 문법적 판단과 빈도에 반영되어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강제 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의 이분법 적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정도성을 가진 현상임을 한국어 경동사 구문에 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문법적 판단, 그리고 이들이 사용되는 빈도와 의 상관관계를 통해 밝혔다.

참고문헌

- 서정수. 1991.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서울: 한국문화사.
- 송정근. 2007. 구체명사와 결합하는 하다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123-140.
- 임서현. 2004. 생성어휘부 이론의 특질구조와 유형강제: 동사 ‘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3-133.
- 임홍빈. 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55-76.
- Chae, H.-R. 1997. Verbal Nouns and Light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3.4, 581-600.
- Choi, Y. J. 2014. Cognitive Semantics Approach to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s.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71, 355-372.
- Choi, Y. S. 2016. Verbal Noun in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 Redux.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2.1, 115-140.
- Im, S. and C. Lee. 2013. Combination of the Verb ha-‘do’ and Entity Type Nouns in Korean: A Generative Lexicon Approach. In J. Pustejovsky, P. Bouillon, H. Isahara, K. Kanzaki, and C. Lee (eds.), *Advances in Generative Lexicon Theory*. Dordrecht: Springer. 203-226.
- Joh, Y. 2018. Two Types of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s. *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31.1, 1-22.
- Jun, J. S. 2004. Enriched composition in conceptual semantics and the generative lexicon theory.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9.3, 437-460.
- Kearns, K. 1988. *Light Verbs in English*. Ms., MIT, Cambridge, Mass.
- Kemmer, S. and M. Barlow. 2000. Introduction: A Usage-based Conception of Language. In M. Barlow and S. Kemmer

- (eds.), *Usage-based Models of Grammar*.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i-xxi.
- Kidd, E., E. V. M. Lieven, and M. Tomasello. 2010. Lexical frequency and Exemplar-based Learning Effects in Language Acquisition: Evidence from Sentential Complements. *Language Sciences* 32, 132-142.
- Kim, M. 2004. The Korean Verbal Nouns in Light Verb Constructions.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22.3, 177-192.
- Langacker, R. W. 1988. A Usage-based Model. In B. Rudzke-Ostyn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Benjamins, 127-161.
- Michaelis, L. A. 2005. Entity and event coercion in a symbolic theory of syntax. In J. Östman and M. Fried (eds.), *Construction Grammars: Cognitive Grounding and Theoretical Extension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45-88.
- Pak, M.-O. 1999. Verbal nouns in Korean: Categorically unspecified lexical root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8, 517-531.
- Pustejovsky, J. 1995. Linguistic Constraints on Type Coercion. In P. Saint-Dizier and E. Viegas (eds.),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Cambridge; New York;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1-97.
- Stefanowitsch, A. and S. Th. Gries. 2003. Collocations: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of Words and Constru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8, 209-243.
- Tomasello, M. 2003.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Yoon, S. 2012. *Constructions, Semantic Compatibility, and Coercion: An Empirical Usage-based Approach*. Ph. 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 Yoon, S. 2013. Correlation between Semantic Compatibility and Frequency: A Usage-based Approach. *Linguistic Research* 30.2, 399-417.
- Yoon, S. 2019. Coercion and Language Change: A Usage-based Approach. *Linguistic Research* 36.1, 111-139.

윤소연, 교수

22012 인천광역시 연구원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syoon@inu.ac.kr